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2603-000011-01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

한국행정학회

제 출 문

국가교육회의 귀하

본 보고서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검증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09.28.
한국행정학회

- 검증위원장 :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검 증 위 원 : 김주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검증보조원 : 조은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이나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목차 Contents

제1장 검증 목적 및 기준	2
1. 검증배경 및 목적	2
2. 검증위원회 구성 및 검증절차	5
3. 검증기준	7
제2장 검증결과	9
1. 사전준비 및 설계	9
2. 숙의과정	15
제3장 총평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4

<표 차례>

[표 1]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일정	2
[표 2]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구성 및 역할	5
[표 3] 시나리오워크숍 검증기준	7

<그림 차례>

[그림 1]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절차	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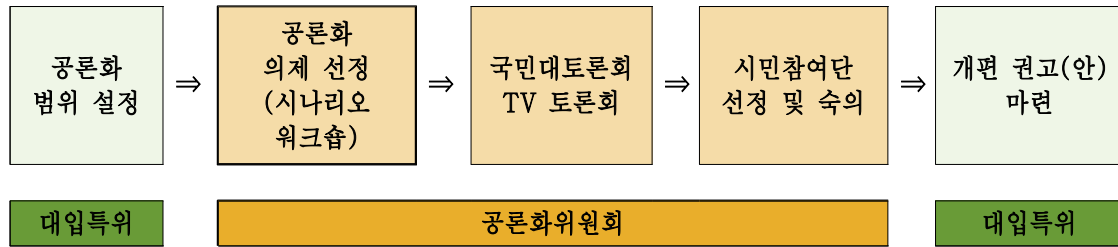
제1장 검증 목적 및 기준

1. 검증배경 및 목적

1)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의 배경

-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7월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의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31일 발표하였음
-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8월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4월 16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해 공론화 추진방안을 발표함
 - (추진체계)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 관계자 등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포함 13명)를 구성하고,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위원장(김영란) 포함 7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 설정 - 공론화 의제 선정 - 시민참여형 숙의 및 조사 -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작성의 공론화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됨
 -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공론화위원회는 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②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③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함
- (공론화 범위) ① 학생 선발방법의 비율(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간 비율 검토), ② 수능평가방법, ③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공론화 절차)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를 결합한 형태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개발·적용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절차 〉



○ 이 중 시나리오워크숍은 이후의 절차에서 활용될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선택지(대안)’를 개발하는 과정임. 따라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의 핵심적 절차로,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시나리오워크숍의 역할)¹⁾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은 2022 대학입시제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되며, 이후 ①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② 미래세대 토론회, ③ TV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④ 시민참여형 조사의 시민참여단의 숙의의제로 제공됨
- (시나리오워크숍의 일정) 시나리오워크숍의 진행일정은 [표 1]과 같으며, 총 1박 2일의 일정으로 구성

[표 1]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일정

일자	시간	내용
6월 16일(토)	09:30~10:00	참가자 등록 (지원단)
	10:00~10:10	개회, 인사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10:10~11:35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시나리오개념 및 사례소개 - 대입전형에 대한 설명-일반대학교, 전문대학교(교육부 담당자) - 공론화의 범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 시나리오워크숍 소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심준섭 위원)
	11:35~12:00	참가자 인사와 기대나누기 (사회자 진행, 전체 참가자 인사)
	12:00~13:20	점심식사
	13:20~14:10	워크숍 목적과 목표, 진행과정 소개, 토의 기본규칙 (사회자 진행)
	14:10~18:00	<세션 1> 미래비전 토론-역할별 모둠 토론 - 내가 바라는 교육 미래 - 내가 바라는 10년 뒤 미래 교육의 모습은? - 미래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2018.06.13.).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개최

일자	시간	내용
		- 현재 우리 교육 환경은?
	18:00~19:20	저녁식사
	19:20~21:00	<세션 1> 미래비전 토론-역할별 모둠 토론 - 방향성과 고려해야할 기준 <세션2> 기준에 맞는 제안 만들기 워밍업 - 대입개편의 방향성과 우려사항
6월 17일(일)	09:00~09:30	진행사항 Review, 일정소개
	09:30~10:50	<세션 3> 기준에 맞는 시나리오 만들기-역할별 모둠 토론
	11:10~12:00	<세션 3> 평가기준 논의
	12:00~13:20	점심식사
	13:20~14:20	<세션 3> 제안 내용 세부 논의, 제안서 만들기
	14:40~16:00	<세션4> 제안 시나리오 발표 및 선정
	16:20~17:00	<세션 5> 평가
	17:00~17:30	향후 진행과정 소개, 폐회

* 자료: 시나리오워크숍 자료집(2018)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의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나리오워크숍 절차에 대한 제3의 중립적 전문가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후 한국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아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과정을 진행함

2)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의 대상 및 목적

-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전 과정 중 1박 2일간 진행된 ‘시나리오워크숍(2018.06.16.~06.17.)’의 과정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함
 - 1박 2일의 공식적 진행과정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일정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검증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시나리오 워크숍 일정 내에 최종 4개의 시나리오가 마련되었으나, 시나리오 간 분량, 형식의 차이로 인해 1박 2일의 공식 일정 이후 공통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게 시나리오를 재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종료 예정 시간을 넘긴 상황이므로 워크숍을 폐회하고, 참가자의 제안에 따라 의제별 대표자가 시나리오 최종안을 작성하고 해당 의제 그룹 참여자의 회람, 동의를 받아 제출하기로 하

였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6.18. 4개 의제별 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열어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6.20. 공론화 의제를 발표하였음

- 시나리오워크숍의 검증 목적은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과정 전반의 합리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검증위원회 구성 및 검증절차

1)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구성

-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는 한국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은 시나리오워크숍 및 공론화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3명과 이를 지원하는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었음
- 5명의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의 전 일정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2]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 구성 및 역할

직위	구성원		역할
검증위원장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장 검증 및 보고서 작성
검증위원	김주경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현장 검증 및 의견서 제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검증보조원	조은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현장 검증 지원 및 보고서 편집
	이나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2)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절차

-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위원회는 크게 5단계를 거쳐 검증보고서를 작성 후 공론화 위원회에 이를 제출함
 - 1단계,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
 - 2단계, 시나리오워크숍 현장검증(1박2일의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과정 참관)
 - 3단계, 검증위원장 및 검증위원의 의견 종합
 - 4단계, 검증보고서 작성
 - 5단계, 검증보고서 제출
- 각 단계별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제1단계: 공론화위원회와 검증위원장이 시나리오워크숍의 개괄 및 검증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검증의 방향을 설정함. 이후 검증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검증과정에 토론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그러나 이 과정

에서 공론화위원회와 검증위원장 간 사전협의 내용은 시나리오워크숍의 개괄 및 검증위원회의 역할, 검증목표 등에 대한 거시적인 틀과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으며, 그 밖의 검증세칙과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증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함

- 제2단계: 1박2일의 시나리오워크숍 전 일정에 참석하여 진행과정을 참관하고, 문제점을 기술함. 그러나 검증위원회는 전 일정에 대한 녹취록 등을 제공받지 못했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테이블별 토론의 진행상황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발언기회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기는 어려우며, 질적인 분석만이 가능함을 밝힘
- 제3단계: 검증위원장 및 검증위원이 제2단계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증위원장이 취합함
- 제4단계: 검증위원장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증보조원이 편집함
- 제5단계: 검증위원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검증보고서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함



[그림 1]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절차

3. 검증기준

- 검증위원회는 제1단계 시나리오워크숍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6개 기준(합리성,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기준을 구조화함
- 첫째, 검증의 대상인 ‘시나리오워크숍’을 ‘① 사전준비 및 설계, ② 숙의과정’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함
 - 사전준비 및 설계측면은 1박 2일의 공식일정 전 준비 및 설계 과정을 ‘①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 및 사전교육, ② 정보제공, ③ 자료집 및 발표자, ④ 워크숍 환경’ 등으로 구성된 사전준비와 ‘⑤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선정기준, ⑥ 토론주제 및 결과효력’ 등으로 구성된 설계로 구분해 검증함. 사전준비는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설계측면은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숙의과정 측면은 1박 2일의 공식일정 중 시나리오워크숍 전반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사회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전문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중립성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행태를 중립성, 책임성 측면에서 검토함
- 검증기준은 [표 3]과 같이 다음과 같음. 각 검증기준별 결과는 ‘검증결과, 근거,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이 중 시사점은 향후 유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함

[표 3] 시나리오워크숍 검증기준

3가지 측면			검증기준	
사전준비 및 설계	사전준비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 및 사전교육	공정성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전문성	• 시나리오워크숍을 주관하는 각 행위자들의 시나리오워크숍의 목표 및 방법 공유(사전교육)
		정보제공	투명성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의 충분성 및 객관성
			전문성	• 기초정보 제공을 위한 발표자의 역량과 준비내용이 적절성
		워크숍 환경	효율성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공간 및 진행인력,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
	설계	시민 참여자 선정기준	공정성	• 참관인 선정기준의 공정성
			합리성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그룹 설정의 타당성
		토론주제 및 결과효력	합리성	• 교육미래비전과 대입제도개편안 등 2가지로 구분된 대한 시나리오 개발 주제의 적절성
			투명성	• 개발된 시나리오의 효력대한 정보제공 수준

3가지 측면		검증기준	
숙의과정	사회자의 진행	전문성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의 시나리오워크숍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 사회자의 시나리오워크숍 절차 운영에 대한 전문성(시간관리,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운영절차 안내 충분성 등)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의 공정한 발언기회의 제공여부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시 모든 의견수렴사항 및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테이블별 토론과정의 통일성 있는 진행여부
		중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의 공정한 발언기회를 제공 여부 • 퍼실리테이터가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였는지 여부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참여행태	중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시민과 참관인 간에 의견교환 여부 • 종료 전 이탈한 참여시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의견을 강요하거나 욕설·비방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 시나리오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지 여부

제2장 검증결과

1. 사전준비 및 설계

1) 사전준비

(1)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 및 사전교육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전문성과 선정의 공정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함) ▪ 퍼실리테이터에 대해 주제와 운영절차, 원칙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짐.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한 퍼실리테이터들은 퍼실리테이터 기본 교육 및 실습, ‘신고리5,6호기공론화’, ‘국민헌법 속의형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 사전 교육을 통해 기존 시나리오워크숍과 다른 본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기본교육과 세가지 쟁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자료 사전 개인학습, 쟁점범위에 대한 자료 공유), 분임별 토의시 질문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 및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의 대입제도 관련 지식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보다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가 해당 쟁점에 대해 갖추어야 할 충분한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본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절차를 살펴 본 결과 적어도 ‘기본적인 관련 용어, 제도에 대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평균 수준의 이해’가 확보되는 것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로부터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대다수가 일반시민이 아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집단일 경우,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비교적 높음. 따라서 사회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 활용이 활발해 지게 된다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인력풀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워크숍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의 경우,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계획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때그때 소통하고 확인하자’는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2) 정보제공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사전교육을 진행함 ▪ 워크숍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대체로 포함되었으며, 현장의 필요 정보 추가요청에 대해 참여시민 중 전문가, 공론화위원회 위원, 사회자 등이 보완·공유함 ▪ 발표자는 공무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발표역량은 갖추고 있음. 그러나 대입제도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자료제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2일의 진행과정 중 1일차 오전 프로그램이 사전교육에 해당함(사전교육에서는 해외 사례소개, 진행절차와 참여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음)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이유, 참석자의 역할, 작성된 시나리오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6.11. 사전 간담회, 1일차 설명(자료집 중 공론화 범위 설명자료의 경과에 관련 내용 포함)을 통해 안내. 28명의 참석대상 중 18명(학생은 학교수업 및 이동부담 등을 고려해 제외)이 참석 ▪ 현장에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 중 일부는 대학입시제도가 왜 공론화에 논의대상이 되었고, 그간의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입제도의 역사 관련 정보 필요성을 제기함 ▪ 기초정보는 ①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②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 ③ 시나리오워크숍 개요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음 ▪ 대학입시제도의 이해는 교육부 담당자가 발표하였음. 단, 발표과정에서 법 적용어와 관행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 ▪ 시나리오워크숍 개요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발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과정과 진행방식 및 시나리오에 대한 교재의 경우, 해당 시나리오 워크숍과 유사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이해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단, 이 경우 대입제도 개편 관련 사례일 경우 불공정성 유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유사 사례란 개발된 시나리오의 형태나 구체성의 수준 등이 유사한 것을 말함) ▪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될 경우, 이와 같은 사전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도(e-learning 등을 활용) 시나리오 워크숍의 절차 및 토의 주제에 대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발표의 경우,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전문 프레젠테이션 제작자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음

(3) 워크숍 환경

가. 검증기준 1: 시나리오워크숍 진행공간이 효율적인가? (효율성)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공간의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분임토론의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필요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은 미흡하다는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의 의견이었으나 참여자들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요청사항에 대한 즉각적 반영을 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실리테이터와 사회자가 비공식적 업무 협의 및 회의를 위해 회의장 외부에 3개 정도의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고, 별도의 회의공간도 준비됨 직사각형 공간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1개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나, 뒤쪽 자리에 앉은 참여자들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됨. 또한 종이에 자필로 의견을 적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필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함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가 테이블 별 노트북 사용을 요청하고, 토론의 내용을 프린트하여 공유하게 하는 등의 요청을 하여 이를 현장에서 반영하였음 다양한 색의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으나, 랜덤 배치함으로써 색이 가지는 ‘분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포스트잇의 색을 테이블 별로 구분하여 활용하거나, 주제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에서 퍼실리테이터는 각 테이블별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기록은 별도의 보조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또한 테이블별 진행보조를 위한 보조원을 지원하는 것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공론화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공간은 참여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섭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1명의 발표자/진행자와 청중으로 구성된 구조로, 현재의 공간이 적절 ☞ 시나리오워크숍: 전체논의와 모듈토의 등이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듈토의 결과물을 퍼실리테이터들이 정리하여 양쪽 벽에 붙여 발표를 진행할 때에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어렵고, 원형 테이블의 좌석배치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이 경우는 전면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2개 배치하고, 큰 글씨로 모듈별 토의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테이블별 노트북 비치가 되는 등이 적절

2) 설계

(1)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선정기준

가. 검증기준 1: 참관인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투명성, 공정성)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시 참관인 참석 가능 및 참관인의 발언권 불허 등 참관 수칙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졌음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나, 그룹분류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은 역할모둠별로 토론시에는 대등한 토론이 가능하나, 랜덤모듬 토론시에는 집단 간 정보의 격차나 관심정도에 차이가 커서 대등한 토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워크숍 내 참관인의 경우, 참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참여자에게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6.11. 시나리오 워크숍 사전 간담회(대상자 28명 중 18명 참석, 주중으로 학생 제외) 시 참관인 참석이 가능하나 발언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음. 사전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닌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보호를 위해 보호자에게도 숙식이 제공된다는 참관수칙을 개별 안내하였으며, 이에 7명 학생 모두 보호자가 참석하였음 ▪ 참관인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간 비공식 논의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중 단체 대표는 해당 단체 입장 반영을 위해 휴식 시간에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속 단체원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단체 소속원인 참관인과 협의하는 것은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금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이 문서화되어 제공되지는 않았음. 또한 일부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의견교환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참가자를 선정함 ▪ 시나리오워크숍에는 총 5개의 그룹(대학관계자, 대입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원)이 참여하였음 ▪ 그러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그룹의 경우, ‘학부모 그룹’으로 명명되어 있어 자신은 학부모가 아닌 시민단체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룹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반영되었음 ▪ 교원 그룹의 경우에도 총 7명 중 현직교사는 3명이었으며, 4명은 교원 단체의 참가자였음. 이 비율은 교원단체 중 수능위주전형 지지나 수능

	<p>상대평가 지지 입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 지지와 학생 부위주전형지지 또는 수능 절대평가 지지와 상대평가 지지를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해 교원 개인을 포함한 결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워크숍은 역할모둠과 랜덤모둠으로 구분하여 숙의하는 과정으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둠토의: 각 이해관계자가 그룹별로 모여 토의하는 것으로, 비교적 대등한 정보를 가진 참여자들 간 대등한 토론이 이루어짐 ☞ 랜덤모둠토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해당분야 경력이 높은 참여자, 자기주장이 강한 참여자 등이 의견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거나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 준비된 멘트만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움 ☞ 모듬을 이동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됨. 예를 들어 첫째, 대학관계자, 대입관계자 등 간의 설전이 벌어질 경우 함께 착석한 청소년들은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둘째, 대학관계자나 입시전문가의 경우, 퍼실리테이터의 시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인의 선정기준 및 규모, 참여수칙 등이 당일 현재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가 개인과 단체로서의 참여가 혼합될 경우, 대표성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사전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시나리오워크숍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문성과 오랜 시간 해당 주제를 고민한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참여형 조사와 차별화됨.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음. 반대로 이와 같은 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이와 같은 방식은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 토론주제 및 결과효력

가. 검증기준 1: 교육미래비전과 대입제도개편안 등 2가지로 구분 된 시나리오 개발 주제가 적절한가? (합리성)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제도개편을 위해 교육의 미래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주제임 ▪ 그러나 시나리오워크숍의 진행 과정에서 교육미래비전과 대입제도개편안이 연결되지 않음 ▪ 시나리오워크숍 오리엔테이션에서 개발된 시나리오의 효력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시민참여형 조사시 개발된 시나리오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미래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의 의제인 ‘내가 바라는 교육의 미래’, ‘현재 우리 교육 환경’,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고려해야할 기준’ 등의 의제는 각 의제가 담고 있는 주제가 광범위하며, 2차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인 대입제도개편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교육미래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이 1일차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대입제도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시나리오워크숍 오리엔테이션에서 개발된 시나리오의 효력에 대해 ‘향후 공론화의 의제로 활용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시민참여단에 수정없이 제공되는지, 전문가 수정·보완을 거치는지에 대해 현장 문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전문가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의제로 확정된다는 답변을 하였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될 경우, 비교적 추상적 주제인 미래비전과 매우 구체적 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참여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가 이후 시민참여형 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수정여부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도출되는 시나리오의 형태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이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숙의과정

1) 사회자의 진행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시나리오 워크숍 주제를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나리오 워크숍 절차 진행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 ▪ 사회자는 공론화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전문가임 ▪ 시나리오 워크숍의 단계별 구체적 목표와 정확한 역할에 대한 안내가 매 세션마다 진행되었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중심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의 의제를 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세부적인 단계별 안내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 ▪ 전체 발표시간의 발언기회는 공정하게 제공되었으며, 대체로 일정대로 진행됨 ▪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는 1박 2일의 과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시나리오 워크숍 절차 진행의 전문가로, 오히려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지원단이나 공론화위원회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명확히 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사회자는 일반시민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고, 본 시나리오워크숍의 쟁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함 ▪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의 효력 등에 대해서 공식적 권한을 가진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진행이었다고 판단됨 ▪ 6.11. 시나리오 워크숍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시나리오 워크숍의 운영 절차, 참여자의 역할, 시나리오의 효력 등을 안내하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시나리오 워크숍 당일에도 시작 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각 단계별로도 취지와 목표 제시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중심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의 의제를 정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세부적인 단계별 안내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 ▪ 사회자와 퍼실리테이터, 검증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반복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퍼실리테이터는 모듈별 토의를 진행하는 사람임을 소개하였으나, 퍼실리

	<p>테이터가 기계적인 진행만을 맡는 것인지, 토론의 서기 역할만을 맡는 것인지, 의견을 재정리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참여자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을 불편해 하거나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자신들이 도출하게 될 시나리오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으로 오해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음 ■ 발언기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제공되었으나, 발언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음.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 해당됨 ■ 사회자는 시나리오워크숍의 각 단계별 진행과정, 전체나눔 및 모듈별 이동 토의 등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 해당됨 ■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렴하였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가 해당 쟁점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공론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단계별 목표에 대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의 숙지는 사회자의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과정(e-learning, 사전 자료집배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사전교육이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자는 각 단계별 목표와 결과와의 연결성을 제시하고,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정리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검증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범위 등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검증활동 지원에 있어 진행자와 검증위원회가 사전 회의를 통해 검증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또한 검증위원회는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의견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기계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일 수 있음. 이에 사회자는 타이머 등을 준비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타이머가 없을 경우 음악 등을 활용하여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발언기회는 모듈별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기회가 균일하게 제공될

	<p>수 있도록 보조진행자가 상황을 체크하고 확인하여 사회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시나리오워크숍의 각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시간관리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전체나눔 및 모듈별 이동 토의 등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공지하는 기계적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일정 외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논의사항을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하고 참여자가 동의할 경우 논의사항을 수락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

2)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의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음 ▪ 토론과정이 테이블별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진행되었으나, 각 테이블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발언기회의 제공은 공정했으나, 일부 참여자들의 발언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존재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장에서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 사전 교육을 통해 주제에 대한 기본 이슈 교육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시나리오워크숍의 특성 상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 존재함. 이러한 모듈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들 간의 발언분량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참여자들이 발언의 공정성을 문제제기할 정도로 크지는 않아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테이블 이동 토론은 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함에 있어 정해진 원칙 없이 테이블의 일부 인원이 자리를 옮겨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테이블 이동 토론에서 퍼실리테이터들은 모듈 내 새로운 인원이 때마다 새로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전혀 발언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부 참여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언기회를 얻기도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참여자들이 공정성을 문제제기할 정도로 크지는 않아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성을 갖춘 과정 전문가로 구성되어야함이 원칙이지만, 시나리오워크숍과 같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토론의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사전교육과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가 공정한 발언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토의규칙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자재나 소도구가 필요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예. 토의규칙을 적어 둔 프린트물, 발언을 저지할 수 있는 레드-옐로우 카드 등) ▪ 향후 본 사례와 같이 참여자 간 전문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함
--	--

3)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참여형태

검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인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의견교환은 적절함 ▪ 공식일정 범위 내에서 이탈한 참여자는 없었음 ▪ 테이블 이동 토의과정에서 일부 참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은 관찰되었으나,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것을 확인할 수 없음 ▪ 욕설·비방은 관찰되지 않음 ▪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참관인이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와 특정한 의제를 지지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확인됨. 그러나 휴식시간 중의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규칙을 고려할 때 적절함 ▪ 공식일정의 예정 시간 내에서 이탈한 참여자는 없었음 ▪ 테이블 이동 토의과정에서 테이블 이동규칙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특정한 참여자는 계속적으로 테이블을 이동하면서 자신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음. 그러나 숙의과정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에 타인에게 의견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욕설이나 비방도 관찰되지 않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워크숍의 참여자가 하나의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경우, 사전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향후에서는 참관인과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의 의견교환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시간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인에게 의견을 강요하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 모두의 퍼실리테이터가 의견강요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욕설과 비방을 할 경우에 퍼실리테이터 뿐 아니라 보조진행자가 규칙을

	<p>상기시키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퇴장할 수 있음을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공지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개발이 향후 공론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 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시나리오 개발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함
--	---

제3장 총평 및 시사점

1. 시나리오워크숍 총평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와 시나리오 도출과정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음
- 시나리오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준비 및 설계, 사회자의 진행, 테이블별 토론, 도출된 시나리오 등 처음 실시함에도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이루어졌고, 돌발상황 및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주제의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약간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와 운영진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
- 향후 시나리오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본 워크숍을 교훈삼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2. 시사점

- 시나리오워크숍을 계획함에 있어 설계단계에서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사전교육과 워크숍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시나리오워크숍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미리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될 경우, 비교적 추상적 주제인 미래비전과 매우 구체적 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하는 목적과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시나리오가 차후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을 위한 사회자와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경력을 검증하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할 사회자와 퍼실리테이터가 부족함.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자가 해당 쟁점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공론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자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회자는 각 단계별 목표와 결과와의 연결성을 제시하고,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 단계별 결과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임
 - 참여자들간의 대등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은 퍼실리테이터들의 토론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퍼실리테이터들이 공론화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하고, 대등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함
 - 퍼실리테이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원칙, 돌발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정리하여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퍼실리테이터의 토론과정 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논의하거나 의견을 주장하지 않게 하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시나리오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듈별 퍼실리테이터 이외 전체적인 진행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시나리오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시나리오워크숍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이 구체적

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제공되는 자료가 사실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시나리오워크숍의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e-learning, 앱 동영상 등의 다양한 교육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임

□ **시민참여단의 경우 그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룹명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을 선정할 때, 각 그룹별로 대표집단을 선정하는 기준과 대표자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공식적인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시나리오워크숍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문성과 오랜 시간 해당 주제를 고민한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지식의 수준과 연령대 등의 격차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

○ 시나리오워크숍에 시민참여단 이외의 참관인의 방청을 허용 할 경우, 참관인의 선정기준 및 규모, 참여수칙 등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하여, 숙의과정의 전체가 아닌 일부 과정만 참석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함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중 숙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구축이 필요함**

○ 숙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함. 사회자는 타이머 등을 준비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타이머가 없을 경우 음악 등을 활용하여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발언기회는 모듈별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기회가 균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 진행자가 상황을 체크하고 확인하여 사회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해야 함

○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참여자가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일정 내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숙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일정을 세워야 함. 만약 일정 외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논의사항을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하고 참여자가 동의할 경우 논의사항을 수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향후 공론화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숙의 및 운영과정의 설계와 검증지표의 설정 및 평가활동 설계가 함께 추진되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후평가 및 검증이 되어야 할 필요 있음

○ 공론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속성을 숙의 운영절차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러한 설계가 현장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활동은 긴밀한 연계성을 갖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는 위원회와 이 절차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전체 숙의절차와 검증절차를 설계할 필요 있음

참고문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2018).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갈등해결&평화센터.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최종보고서>